골목길

정관영
충북도교육청건축사무관

어린 시절 필자가 꿈을 키우던 곳은 산허리를 감싸고 20여 호의 초가가 이마를 마주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개구쟁이였던 필자는 마을 어귀 꼬불꼬불한길을누비며다녔고, 숨이턱에닿도록묘기를부리며제기도차고또래들과자치기, 말타기놀이를하며그길에서 자랐다. 그때의 길들은 마당이고 놀이터였으며 휴식을취하는쉼터이기도했다.

초등학교 시절 그 좁은 골목길은 집 안방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곳에서놀면끼니를걸러도배고픈줄모르고 해지는줄도몰랐었다. 허나어린날의추억이묻어있던 그골목길이지금은차가드나들수있도록넓혀지고아스팔트포장길로바뀌어그때의따스한정취는흔적조차찾을수없게돼무척 아쉽다.

인간은공간을연속적으로체험하며길자체를선으로인식한다. 사람들이다니는길을형성하는것에는도로만이아니라양쪽건물도포함된다. 미국에서는곳곳에‘ 쇼핑몰 이라는상가골목이많이 만들어지고있는데이것은좁은길을만들어그안에사람들이모이도록하여그야말로길의기능을높이고인간화를꾀하려는의도라 할수있다.

요즘 들어 도시 계획을 구실로 도로 폭을 넓혀 다니기에는 편리해졌지만즐거움의공간과마음의안식처는파괴된지오래이다. 시원하게뚫린길은자동차가주인이되어버린 뒤로사람을길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주인과손님이서로뒤바뀐 셈이다. 인적이끊긴 길은 길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사람들이자주 왕래해야길로서 제구실을다한다.

일제 시대의 도시 계획은 신작로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신작로를만들어도개발이뒤따르지않으니신작로끝에새동네라고 하는 ‘ 신마찌 를 만들어 유곽(遊廓)을 설치했다. 이 유곽이야말로 사람을꾀고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편으로설치되었으나그자체는 아늑하고좁은길로구성되었다.

이탈리아의 섬 도시 베니스의 길은 사람도 짐도 물길을 따라 이동한다. 미래를내다보고도시공해를예측하기라도하듯이물을아스팔트로삼고거룻배를타고다니게만든이 길은도시 설계의 극치이다. 길을 모두 자동차에게 빼앗기고 문명의이기인자동차를 이용해 그길을가야하는 사람들에 게베니스의물길은무척낭만이살아있는길이아닐수 없다. 이란의사막도시테헤란의길은사람과나무, 자동차가 가히저마다자기길을따로따로지니고 있으며 그 기능도철저히 분리되어있어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온도시가전천후의길로만들어진이탈리아의보르니야는 80여리나되는길이아케이드식으로덮여있어그속에서 걸상을 내다놓고휴식을취할 수있어명실공히 도시속의거실구실을하고있다. 인류가지혜를동원해만든것중에서이집트피라미드의공적(功績)에버금갈만한것이라하겠다. 길은 어느 도시에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공기처럼 중요한작용을하고있다.

한편, 필자가사는고장의자랑거리인조치원에서청주로진입하는가로수터널의길은가히일품일진대이러한정취와아름다움이 자동차에게빼앗긴채우리의곁을떠나있으니그저안타까울뿐이다. 청주의 관문인 가로수 터널의 좋은입지를되살려정취가묻어나는오솔길을조성하고가꾸어시민들과함께청주를찾는많은사람들이 이 길을 거닐면서 삶의 의미와 지혜를 얻고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명상의길로탈바꿈했으면좋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사라지고, 삶의현장이기도한마음의골목길이사라진지오래이다. 오직앞만보고 쾌속질주하는것을 능사로여기다보니모든길을빠르게갈수있는대로로바꾸었다. 그러기에이러한대로를걷는우리의삶은자칫메마르고삭막하기만하여삶의정겨움을느낄여유가없다.

현대 문명이 발달된 요즘의 길은 교통 공학적인 수치의 잣대로 길의 주체가 자동차로 변하여 기계 문명에 의해 인간의 직립 보행 공간을빼앗기고 말았다. 자동차매연에찌든답답한도심에서1년에단며칠만이라도차없는정겨운거리에서건강하게발걸음을옮기는사람이길의주인이되는명상의길을꿈꾸어본다.